

# EBS, Quam Libet.

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

	A는 누구?	38p
1	A은(는) 우주 만물의 근원은 태극으로서의 이(理)이며, 이가 우주 만물에 부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A에(게) 따르면, 이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즉 천리에서 본다면 만물은 같다.	
	누구?	39p
2	“아픔을 안다고 할 경우도 반드시 자기가 이미 아픔을 겪어야만 비로소 아픔을 안다고 할 수 있으며, 추위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이미 추위를 겪은 것이고, …:	
	누구?	41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사람과 사물이 생겨남에 반드시 이 이치를 품부받은 후에 본성이 있다. 반드시 이 기운을 품부받은 후에 형체가 있다. 그 본성과 형체는 몸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와 그릇의 구분은 경계가 분명해서 혼동할 수 없다.</li> <li>· 이치와 기운은 분명히 두 가지이다. 그러나 사물 상에서 보면 둘은 서로 섞여 있어 나누어 있게 할 수 없다. 만약 이치 위에서 보면 사물이 있기 전에 이미 사물의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가 있을 뿐 사물이 있지는 않다.</li> </ul>	
	누구?	41p
4	마음은 몸의 주재이며, 마음의 허령명각(虛靈明覺)이 이른바 본연의 양지(良知)이다. 허령명각의 양지가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념(意念)이라 한다. 양지가 있는 뒤에 의념이 있고, 양지가 없으면 의념이 없으니, 양지는 의념의 본체가 아니겠는가? … 무릇 의념이 작용하는 곳에는 언제나 물이 있다. 이 의념이 있으면 곧 이 물이 있고, 이 의념이 없으면 곧 이 물이 없으니, 물은 의념의 작용이 아니겠는가?	
	누구?	42p
5	“성이란 심의 이(理)요, 정이란 심의 동(動)이다. 심이란 성과 정의 주재(主)이다. … 성은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이고, 정은 이미 발동한 것이며, 마음은 이미 발동한 것과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포괄한다. 대체로 마음이 발동하기 전은 성이고, 이미 발동한 후에는 정이 되니, 이른바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心統性情, 심통성정).’는 것이다.”	
	누구?	44p
6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게 하였다. … 그 이치를 알고자 하되 지극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사리(事理)가 다 궁구되지 못함이 있게 되어 나의 지해도 미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극한 경지에 이른 뒤에야 그친다.	
	무엇?	45p
7	… 이 학문은 현실 문제는 접어두고 이기(理氣)나 심성(心性)을 논하는 공허한 형이상학, 이른바 송학(宋學)에 대한 반발과 반청(反淸)감정, 시대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등장하였다. 송학이란 이름에 맞서서 이를 한학(漢學)이라고도 불렀다. …	

1. 주희(주자) 2. 왕양명 3. 주자 4. 왕양명 5. 주희 (어렵지 않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6. 주희(주자) 7. (청대) 고증학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상의 변화를 숙지하세요.)